

“비행은 위대한 사랑처럼 해방이자 귀환”

파일럿이 하늘길에서 보고 느낀 생각 에세이



비행의 발견

마크 밴호네커 지음

“더 높이, 더 높이 올라가!” 81살의 아버지 아들 형제의 첫 비행을 지켜보며 외쳤다. 1903년 12월, 미국 라이트형제가 하늘을 나는 기계를 띄우려던 때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였다. 그로부터 110여년이 지난 현재,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은 안전한 일상속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늘상 국제공항은 어디론가 떠나거나, 돌아온 이들로 북적거린다.

최근 선보인 ‘비행의 발견’은 여객기를 모는 파일럿이 비행을 하며 보고 느낀 생각들을 담은 에세이다. 저자인 마크 밴호네커는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비행출장이 잦은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다 비행교육 과정을 거쳐 어릴적 꿈인 파일럿이 됐다. 지금은 보잉 747기를 운항하는 ‘영국 항공’의 선임 부기장으로 일하며 세계 주요 도시를 날고 있다. 작가는 “비행은 여느 위대한 사랑처럼 해방이자 귀환”이라고 말한다.

‘하늘길을 찾는 파일럿의 여정’이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이륙과 장소, 길찾기, 기체, 공기, 귀환 등 비행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돼 있다. 선택된 이들만 누릴 수 있는 조정실에서 바라본 지구의 풍경과 비행에 관한 생각들을 담담하게 들려준다.

저자는 구름위뿐만 아니라 백아속을 나는 비행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밝힌다. “조종사라는 직업은 거의 전 지구를 아우르는 감수성을 끌어내, 모퉁이 너무 동네 어귀의 나무까지 길을 따라가듯 쉽게 수많은 나라와 대륙을 일주하는 마음의 지리학을 완성한다.”

인류가 하늘을 나는 법을 알게 된지 30년만인 1933년 비행기가 에베레스트 정상 상공을 날았다. 탐험한 사진작가 한명은 산소부족으로 기절했다. 저자는 여행기가 히말라야 상공을 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산악 지형이 여객기의 하강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상을 박차고 이륙해 대륙을 가로질러 목적지에 내려앉는 비행은 매력적이다. 조종사가 비행에 끌리는 까닭은 뭘까? 무엇보다 ‘3차원적인 완전한 자유’와 ‘높이에 대한 영원한 동경’ 때문이라고 한다. 저자는 자신의 무용담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궁금해 할 소소한 비행에 관한 파일럿과 조종실 세계를 보여준다. 작가는 여행자가 비행기 창가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웹사이트(skyfaring.com)에 보내달라고 권유한다.

〈북플래닛·1만65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나는 책나무를 심는다

한상수 지음



모든 문화의 바탕은 책이다. 다시 말해 문화 생태계의 근간은 책이다. 이 말은 고전적 정의를 떠나 21세기 오늘에 가장 부합한 명제이기도 하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우리 유년기의 나날 가운데 좋아하는 책 한 권과 함께 보낸 날만큼 충만하게 살아낸 시간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만큼 독서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책 읽기 자체가 행복한 시간이며 의미 있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독서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문제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1년간 우리나라 성인 중 1권 이상 책을 읽는 사람 비율은 65.3%에 불과했다. 20년에 비해 21.5%가 떨어진 역대 최저 수치는 정부가 실시하는 독서문화진흥운동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 당국이 도서와 출판에 공공재로 인식해 지원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파부에 와 닿는 정책은 없다.

이처럼 점차 어려워지는 독서 환경 속



책은 모든 문화의 바탕이자 문화생태계의 근간이라는 말은 독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은 종교서점 알라딘 입구의 전경. <광주일보 DB>

에서도 꾸준한 책 읽기 운동을 펼치는 이가 있다. (사)행복한아침독서의 한상수 대표는 18년간 아침독서운동을 펼친 주인공이다. 그가 발간한 ‘나는 책나무를 심는다’는 책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독서운동이 이야기 수록돼 있다. 책 전면에는 왜 독서운동이 ‘책나무를 심는’ 행위인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담겨 있다.

저자가 독서운동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이와 함께 경험한 책 읽기의 즐거움을 동네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 어린이도서관을 시작했다. 인생 2막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전업독서가의 길을 걸으면서 펼쳐진다.

지난 2005년 시작한 아침독서운동은 여러 모로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이 책을 만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을 썼다. ‘아침독서신문’을 비롯 4종의 도서 신문을 매달

만들어 전국 공공도서관, 유치원, 각급 학교, 작은 도서관, 서점에 무료로 보내는 일을 12년간 꾸준히 펼쳤다.

아침독서운동과 병행해 학급문고 살리기 사업도 전개했다. 처음에는 30여명의 교사에게 40권씩 모두 1200권의 책을 무료로 보냈다. 2005년 한 해에만 모두 2만 권의 책을 발송할 만큼 의미 있는 실적을 거뒀다. 한마디로 저자의 책 나눔은 희망을 나누는 그 자체였다.

아침독서운동을 펼친 지 10년이 지나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화부가 2016년 1월에 발표한 ‘2015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에 ‘아침독서시간이 있다’는 응답은 52.3%로 조사됐다(초 89.1%, 중 61.8%, 고 15.5%). 초·중·고에 아침독서시간이 있는 경우, 없는 학생들에 비해 독서량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아침독서가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2010년 45.3%, 2011년

49.5%, 2013년 51.0%, 2015년 57.6%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아침독서를 10년째 진행해온 대구시의 경우 2015년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1.7%(전국 3.9%), 학업 중단율은 0.5%(전국 7.44%)였다. 인터넷 과다 사용 학생 비율 역시 전국 7.44%의 25% 수준인 1.82%였다”고 한다.

20여 년 가까운 아침독서운동은 이제 동네책방으로 향한다. 동네책방은 도서관과 더불어 마을의 책 문화를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이다. 또한 동네책방의 활성화는 날로 약화되는 문학출판계 불황을 해소할 수 있는 지름 길이기도 하다.

“책을 만나고, 사람과 책을 잇는 일을 하고 싶다. 지금까지 책과 함께할 수 있어 참 행복했다. 나처럼 많은 이들이 책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한권의책·1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근대 공동주거 100년의 역사 담은 집합주택 종합서



이십세기 집합주택

손세관 지음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0세기 100년 동안 수억 명의 삶을 변화시킨 집합주택의 역사를 조명한 책이 출간됐다. 손세관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가 2008년부터 8년간 집필한 ‘이십세기 집합주택’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쉽게 접하기 힘든 집합주택 종합서다. 사택과 집합주택을 정리한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1993)와 궤를 같이한다.

책에서 저자는 지난 100년을 순수의 시대, 혼돈의 시대, 자각의 시대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논의의 주 무대는 네덜란드, 독

일 등 20세기 주거문화의 변화를 주도한 유럽이다. 책은 순수의 시대인 1900~1930년대 건축가들은 서민에게 ‘최소한의 주거’를 마련해주겠다는 열망을 안고 새로운 주거환경을 보여준다. 주택을 비롯해 사회 전반의 인프라를 망가뜨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는 각국이 주택의 대량 건설에만 급급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기존의 주택 공급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자각한 일부 건축가들은 인간과 역사, 전통, 문화 등을 고려하는 집합주택 건설을 모색하기도 한다.

집합주택에 주거한 사람들의 일상까지 포착한 이 책은 근대라는 세 시대를 맞아 삶의 양상은 어떻게 변화했고, 주거는 또 어떻게 바뀌어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전 세계 다양한 집합주택의 모습을 담은 442장의 도판이 흥미롭다.

〈열화당·3만 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육심 버리고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일곱 농부의 삶



혁명은 장바구니에서

마스트라로 사쿠라 지음

자연에게 얻은 것을 소중히 간직하며, 남보다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일곱 농부의 삶을 들여다본 ‘혁명은 장바구니에서’가 출간됐다. 환경운동가, 대안농업 활동가들과 교류하며 지역 마을 문화의 부활을 위한 네

트워크 운동을 펼치고 있는 마스트라로 사쿠라는 “별레와도 나눠먹는다”는 마음으로 농업의 미래를 생각하며 책을 펴냈다.

책에서 소개되는 농부들은 모두 6차 산업의 선구자들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그날 먹을 음식을 다 같이 재배하고, 다 같이 거두어들이고, 다 같이 음식을 만들고, 농가 레스토랑을 통해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림으로써 다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놀민·1만6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농부철학자가 들려주는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



꽃들은 검은 꿈을 꾼다

윤경병 지음

“밤이 오면 단잠을 이루는 온갖 빛깔의 꽃들도 모두 검은 꿈을 꾼다. 낮에 하얀해를 향해 풀과 나무의 새순이 발돋움하는 사이에도 뿌리는 검디검은 땅속으로 뻗습니다. 검고 검은 것이 모든 것을 싹트게 하고 키우는 어미 노릇을 합니다.”

농부철학자 윤경병이 들려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기 ‘꽃들은 검은 꿈을 꾼다’가 나왔다. 칠십 평생을 교육·출판·생태·평화·어린이문화 운동으로 치열하게 살아온 저자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애정어린 당부와 간절한 외침을 전달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가난이 제 삶의 밑천이었습니니다”, “나는, 우리는, 탓 둘릴 길이 없다. 그래서 운다” 글 틈틈이 저자의 손글씨와 화가 박건웅의 그림이 어우러져 생각을 기다리게 하는 여유도 선물한다. <보리·1만1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혜은이 디너쇼

2017.04.11.(화)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165,000 원 (VAT포함)

Hye Eun Lee

2017 Dinner Show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